

의약품 '원료-완제품-유통' 수직계열화, 中企서 해냈다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이니스트 김국현 회장

R&D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혁신 신약 개발 꿈, 계속 이어가
2023년 초 상장 목표로 준비 한창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이니스트그룹 본사 로비의 한쪽 벽에는 다양한 원료 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꽂 메워져 있었다. 종류가 많아 이걸 다 만나나 물으니 이니스트 관계자는 "원료부터 전문 의약품, 일반의약품, 화장품까지 다 만들고 있어 그렇다"고 설명했다. 세 개의 계열사가 시너지를 내며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는 거다.

김국현 이니스트그룹 회장은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종근당처럼 큰 회사들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수준에서 이렇게 원료와 완제의 연결고리를 갖고 수직계열화한 구조를 가진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국현 회장은 "이런 구조를 통해 혁신 신약 개발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현재 월드클래스300 연구개발(R&D)과제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고 밝혔다.



이니스트 그룹 본사에 이니스트 그룹이 제조·유통하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이 전시되어 있다. /배한남 기자



김국현 이니스트 그룹 회장(오른쪽)과 신형경 이니스트 팜 대표이사가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의약품·화장품 개발 및 제조사 이니스트그룹에서 '이노비즈 PR-day'를 열었다.

이니스트그룹은 1994년 현 이니스트 팜의 전신인 동우약품으로 시작된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원료의약품을 개발하는 '이니스트 에스티',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 의약품 원료를 유통하는 '이니스트 팜'으로 이어지는 세 개의 계열사가 개발, 생산, 유통을 수직계열화해 원가를 절감하고 자사의 연

구·개발(R&D)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240여개의 전문의약품을 위탁 생산하고, 라라올라나 이니포텐 등의 일반의약품을 자체 브랜드로 생산해 15개국에 매년 1000만 달러 이상을 수출 중이다. 2018년 기준으로 이니스트

그룹의 매출액은 1253억원이고, 종업원 수는 450여명이다.

2013년 석탑산업훈장을 받으며 500만불 수출탑을 받았고, 2014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2015년 1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고, 2017년 월드클래스300 기업에 선정됐다.

현재 월드클래스300 연구·개발(R&D) 과제로 80억원 규모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과 보건복지부 R&D 과제로 5억원 규모의 파킨슨병 치료제 신약을 개발 중이다.

이니스트그룹의 주력사업은 제네릭 원료의약품이다. 제네릭은 특허가 만료



전통시장 청년들, 산불피해 강원도 돕기 동참

성금 300만원 등 고성군청에 전달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이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3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김부각을 강원 고성군청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성금 300만원은 지난 5월 17~19일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청년상인 페스티벌'에 참가했던 45개 점포 청년상인들이 기획한 '강원도 산불 이재민 돕기' 이벤트를 통해 마련됐다. 성금은 행사기간 동안 '한정판 청년물 예코

백' 판매를 통한 판매 수익금 전액 및 청년상인이 매칭한 기부금을 합쳐 전달했다.

특히 한정판 청년물 예코백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밀리언페이지 작가인 김명미 웹툰 작가의 재능기부로 제작됐으며, 김작가의 글과 그림을 담은 친환경 소재 듀폰 타이벡으로 인기를 모았다.

노 대표는 우리 전통 먹거리인 김부각을 웰빙 간식으로 재탄생시키며 전통시장 활력제고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제1회 특성화시장 및 청년상인 축제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노란우산공제 '상담·복지 서비스' 확대

中企·中企 협동조합까지 무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던 상담·복지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까지 넓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률, 세무, 노무 등 전문 분야 상담과 휴양시설, 건강검진 등 복지서비스를 3일부터 공제사업 고객인 중소기업과 회원조합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는 114만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공제사업 기금 등의 고객인 2만3000여 중소기업과 570여 회원조합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보부

족 등으로 복지생활에서 소외된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2016년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종합복지포털'을 개설,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는 경영상담·자문, 노후설계, 휴양시설, 건강검진, 쇼핑·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먼저, 법률·세무·회계·노무·지식재산·관세·법무 등 전문가협회와 협력해 변호사 등 전문가 238명으로 구성된 '경영지원단'의 상담과 서면자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진단·상담 등의 '노후준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12세 절반 이상, 영구치 1.84개 충치 경험



12세 아동 절반 이상이 영구치 충치를 경험했으며, 평균 충치 개수는 1.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1.2개보다 많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0년 1차 조사 이후 7번째이며(매 3년마다 실시), 5세 및 12세 4만 1670명을 대상으로 치과 의사가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강검진과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보건복지부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OECD 가입국 평균 1.2개보다 많아 구강건강격차 해소 복지도 늘려야

조사 결과 영구치 충치를 경험한 12세 아동은 전체 56.4%로 나타났다. 평균 충치 개수 1.8개로 미국(0.4개), 일본(0.8개) 등 선진국보다 훨씬 많았다.

12세 아동 60.0%가 영구치에 충치 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 치료를 받았으며, 평균적으로 치료 받은 영구치수는 2.34개였다. 12세 아동 12.1%가 잇몸 염증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치은탐침검사시 출혈을 보였지만 지난 2000년 26.9%에서 지난해 12.1%로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치석을 보유한 비율 26.8%에서 6.6%로 줄어들었다.

12세 아동이 최근 1년간 치과진료를 받은 비율은 71%이며,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진료를 받지 못한 미충족치료필요율은 15%로 나타났다. 치과진료를 받지 못한 주요 원인은 시간부족(56.6%), 가벼운 증상

(25.5%), 진료에 대한 무서움(1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상태를 스스로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이를 상·중·하(3단계)로 분류하여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각 항목을 분석했다. 경제상태가 '하'인 집단에서 치아와 치주건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고, 치아홈메우기 보유율과 치과의료 이용 접근성도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구강보건실태와 지역 간 구강건강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구강보건정책, 구강보건사업 및 연구분야 등에서의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며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상태에 따른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복지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대용제약 당뇨병치료 신약 국내임상2상 승인

'DWP16001' 유효성·안전성 평가

대용제약은 당뇨병치료 신약 'DWP16001'에 대한 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최종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용제약은 신장의 사구체 여과과정

에서 포도당의 재흡수에 관여하는 SGLT2를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포도당이 세뇨관에서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해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선택적 SGLT2 억제제를 연구해왔다. 임상 2상에서는 단독요법으로 'DWP16001'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며, 서울

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전국 30여개 대형병원에서 환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DWP16001'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에서 기존 약물대비 100배 이상 적은 용량으로도 우수한 요당 분비능을 확인했고, 15일 반복 투여 시 하루 요당분비량이 활성대조군 40g에 비해 50g 이상의 요당 분비능을 확인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